

## 기술개발 집중 투자로 세계기업으로 발돋움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기술부문 대상 수상

경북도와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2008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에서 (주)하나(대표 안용우)가 기술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경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선참여, 세무조사 및 납기 유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2002년 9월에 설립된 (주)하나는 포장기계 생산회사로서 임플러스 실러, 포장 기계를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그 동안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했던 타이 머신, 전공 실러 등을 개발해 내수와 수출에서 매출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기술력확보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매진하여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로 2005년도에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날로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같은 해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위한 상주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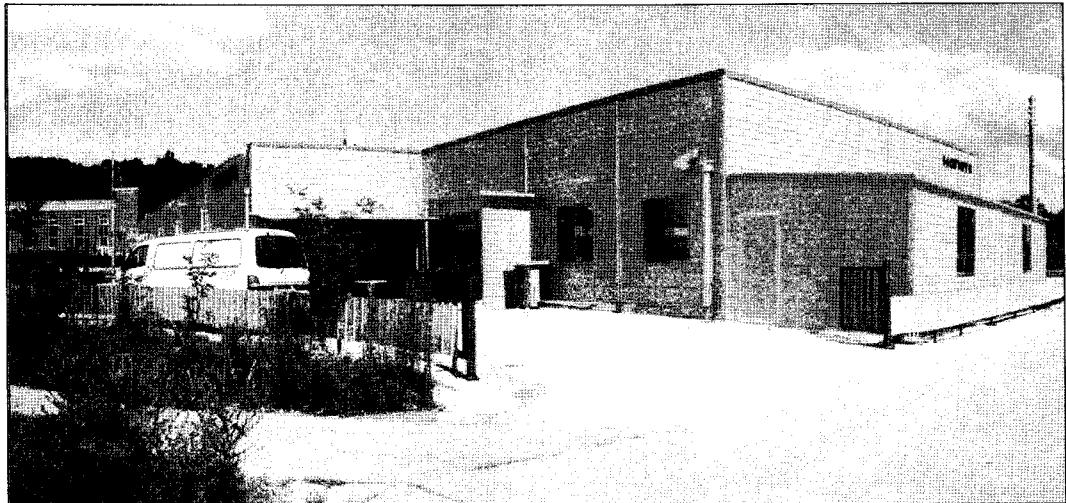
연구소 설립으로 기술력에 박차를 가한 하나는 곧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다.

지난 2007년 자체 기술인력 6명과 상주대학교 교수진을 주축으로 빵봉지를 묶을 때 사용하는 노란 끈을 자동으로 묶어주는 자동결속기(브랜드 HANATO)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개발한 것.

자동결속기 개발은 2006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특화기술 혁신선도 지원 사



▲ 2006년 경상북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하나



▲ 경북 김천시 대광동에 위치한 (주)하나

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6000만원과 자체 자금 21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들여 1년 여 만에 이뤄낸 결과다.

자동결속기는 끈을 손상없이 비틀어 꼬아주는게 핵심기술이다.

안용우 대표는 “자동결속기 개발은 그동안 국내 업체들이 금형을 만들지 못해 포기했던 분야”라며 “개발비의 90% 이상을 금형 개발에 썼다”고 말했다.

이 기기는 1분에 40봉지 이상 묶을 수 있어 1분에 5~6봉지를 묶는 수작업에 비하면 작업효율이 8배 가량 높다.

이밖에 하나의 주요생산제

품으로는 Band Sealer, Ultra Sonic Sealer, Auto Wrapping, Twist tying Machine 등이다.

Band Sealer는 봉투에 생산품을 넣고 이를 마감하는 방식의 모든 생산품 봉투의 사이즈 및 내용물에 따라 수평 및 수직형으로 나뉘어 진다.

이 제품은 컨베이어를 이용한 접착기로서 대량 생산에 적합한 모델로서 주문형을 생산, 양산단계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함으로 사용자의 생산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그 용도가 어느 한쪽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친 수요로 인해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나 중국의 저가형 모델부터 국내에도 경쟁사가 늘어 시장성은 그리 밝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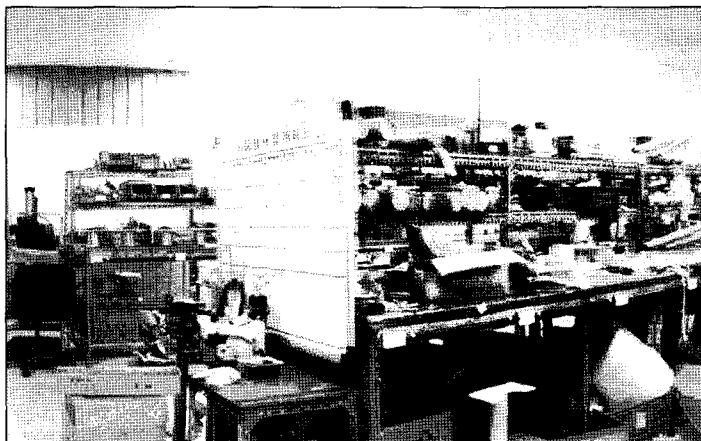
이에 대응책으로 하나는 주문형으로서 컨베이어 등의 특정부품의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lisp 언어를 사용한 Autocad 모듈을 사용하여 생산단계에서 주문 설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대처하고 있다.

Ultra Sonic Sealer는 PSP, OPS, PVC, 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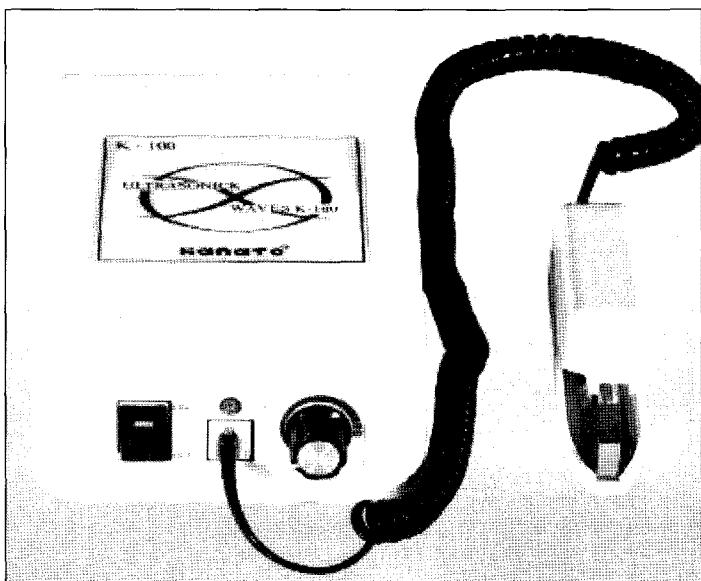
포장현장속으로

탐방...

# HANA



▲ (주)하나의 공장내부



▲ (주)하나의 Ultra Sonic Sealer

PPF, A-PET 계열의 용기 포장이나 융착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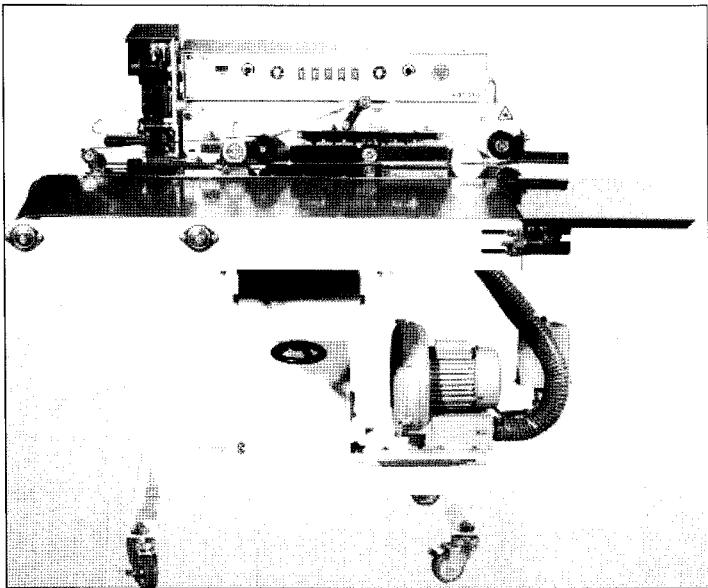
지금까지 개발된 초음파 접착기 및 초음파 융착기는 그 사이즈가 대부분 탁상형 이상의 사이즈가 대부분이고 Gun 타입이 있으나 고가의 제품들이 그 주류를 이룬다.

이를 부담이 적은 저가의 제품으로 개발하여 부담을 줄일수 있다.

아직까지 개발 마무리 단계이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 그 수요가 미약하나 LCD 생산 라인의 생산재 이음 등 수요가 늘고 있다.

하나의 Ultra Sonic Sealer는 국내 자체 개발이므로 저가로 공급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Auto wrapping은 무게(weighing), 포장(wrapping), 표시 Tag(Labelling-유통기



▲ (주)하나의 밴드 실러

한, 바코드, 가격표시)을 한번에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가격은 다소 고가이긴 하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 작업을 단번에 처리하여 인건비를 많이 절감해준다.

Twist tying Machine은 우리가 주로 즐겨 찾는 제과, 야채, 건어물 등의 식품 포장용으로, 흔히 포장물 상단에 끈을 묶어주는 기계로 가격이 저렴하여 대형 유통회사 및 할인마트에서는 대부분 이를 사용하여 인력 3~4명의 일손을 대신해 주고 있어 경비절감이 크다.

하나는 앞으로 세계 10대 포장기 회사로 발돋움할 목표로 규모 보다는 내실을 다져 견실한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첨단 포장기계 개발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이 회사는 2002년 9월부터 지역 장애인을 고용하기 시작해 현재 33명의 종업원 가운데 25명이 장애인으로 연구 인력을 제외한 전 근로자가 장애인이고 임업이 없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또한 장애인 중심 기업으로 선정되어 추가적인 고용창출

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묵묵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안용우 사장은 “장애인을 처음 고용했을 시 제품에 대한 클레임도 많아 반품되는 사례도 빈번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1년 정도의 훈련 끝에 지금은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하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몫을 제대로 하고 있어 불량률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나의 직원들은 장애부분에 따라 조립 라인마다 적재 적소 배치되어 개별 부여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북 김천시 대광동에 위치한 공장은 여는 공장 못지 않게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2003년도에는 노동부로부터 클린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끊임없는 제품 연구, 개발, R&D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루며 세계시장으로 당당히 나가고 있는 (주)하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하나의 행보가 주목된다. ☺

이한얼 기자